

# 성 유대절 베드로

#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o.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나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좌희선 (보노사)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주 일 미사 전 30분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관 면 흔 배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 **위령성월 동안 수여되는 전대사 (교황청 내사원 교령)**
  - 묘지를 참배하여, 또는 마음만으로도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에게 수여되는 전대사는 통상적으로 11월 1일부터 8일까지이지만, 이 기간을 **11월 한 달 동안의 어느날이 되어도 전대사를 수여한다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19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들은 모든 신자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며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전대사의 일반적인 세가지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을 위한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을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칩니다.

- 위령 시간 전례의 아침 • 저녁 기도  
 - 묵주기도  
 -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위령기도)

- **교구장님 영명축일 '영적예물' 봉헌**
  - 11월 30일(월)은 서울 대교구 교구장님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영명축일입니다. 교구장님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사, ▶묵주기도, ▶주교를 위한 기도, ▶화살기도, ▶희생

- **보노사 수녀님 피정**
  - 11월 18일(수)까지 피정 중이신 좌희선 보노사 수녀님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탄 대축일 제대꽃 봉헌**
  - 예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며 제대 장식을 위하여 꽃봉헌 하실 단체나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림특강 일시 및 주제**
- |   |
|---|
| <b>대림특강 1: 12월 8일(화) 오후 8시, 2층 대성전</b><br><b>“코로나 시대의 건강과 희망 찾기”</b><br>이나미 교수 (서울대정신의학과) |
| <b>대림특강 2: 12월 15일(화) 오후 8시, 2층 대성전</b><br><b>“코로나 19와 공동체의 삶”</b><br>정석 예로니모 교수 (서울시립대)  |

- **위령성월 사별가족 초청미사**
  - 일시: 11월 17일(화) 오후 6시 20분, 2층 대성전
  - 대상: 2018년 11월 ~2020년 10월까지 본당에 교적을 두신 사별 가족
  - 문의: 연령회장 (010-7186-7222)

- **한가문연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일시: 11월 20일(금) 오전 10시, 2층 대성전
- **제 61차 성지순례 (지하철 및 도보 순례)**
  - 일시: 11월 28일(토) 오전 8시, 성당마당 출발
  - 순례지: 인천교구(교구청성모당, 답동주교좌, 제물진두성지)
  - 준비물: 회비(1만 5천원, 중식제공) 순례책자, 스카프, 간편복장(바람막이)
  - 문의: 송요셉 (010-5252-1791)

- **올 한해도 잘~읽었다!**
  - 올 한해 마치면서 전신자 대상으로 본당 추천 도서를 읽으신 분들의 '느낌! 한마디'를 받습니다. 11월 29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추후 뽑히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월~ 2월	칠층산
3월~ 4월	엘리아와 함께 걷는 40일
5월~ 6월	나이들의 품격
7월~ 8월	뜨거운 마음으로
9월~10월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11월~12월	내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 **사랑의 연탄나눔 (연탄 1만장 모금, 1장당 800원)**
  - 일시: 12월 5일(토) 오전 7시 30분, 성당 출발 (\* 봉사자 100명)
  - 오전 9시~ 13시까지 연탄나눔 봉사활동, 후원물품 전달
  - 수급 대상자: 정릉동 성당 관내에 소외된 불우이웃
  - 사랑의 연탄나눔에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봉사자는 차량을 성당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당일 혼인미사가 있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 문의: 현 베로니카 (010-7169-7025)

- **제 28회 금요 콘서트**
  - 일시: 11월 27일(금) 오후 8시, 2층 대성전
  - 앙상블 토니카와 함께하는 힐링 클래식

- **희망 트리 설치 (11월 22일, 2층 대성전 로비)**
  - 본당 교우분들의 올해의 감사한 마음과 2021년도 소원을 희망카드에 담아 희망트리에 달아주세요♡

- **수요연도는 11월 18일(수)부터 재개됩니다.**
- **시니어연령화:11월 24일(화)10시 미사후, 2층 대성전**

성가번호 입 당: 27      예물준비: 342, 218      성 체: 165, 166      파 견: 23

**화 답 송**



행 복 하 여 라 주 님 을 경 외 하 는 모 든 사 람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46)

서평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3)\_알곡과 짚단

1. 기도와 자선은 천상의 알곡

안나 할머니는 79세에 방광암에 걸리기 전까지 거의 50년을 비단보따리를 하루도 머리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이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분이다. 수녀님이 인사를 해도 대꾸하지 않은 채 묵주기도만 바치는 할머니와 어느 날부터 대화를 하면서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안나 할머니는 시집을 가자마자 남편이 죽는 바람에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과부가 된 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된다. 시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시어머니만을 모시고 살다가 대세를 받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본인도 안나라는 세례명으로 천주교 신자가 된다. 텅 빈 집에 홀로 성모상을 모셔놓고 기도를 드리니 외로운 마음이 사라져 그때부터 성모님을 시어머니처럼 대하며 밥도 차려 놓고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도 나누고 하루 비단을 판 돈의 절반을 성모님께 드리곤 한다. 그런 중에 장사하고 돌아와 보니 집에 도둑이 들어 장롱에 넣어둔 돈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 화가 난 할머니는 성모상을 놓쳐놓고 회초리로 때리며 화풀이를 했다고 한다. 화가 좀 풀리면서 이내 성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할머니는 성모상을 끌어 앉고 자신의 잘못에 용서를 빈다. 어느 날 집 앞에 어떤 청년이 서성이고 있다가 할머니께 다가와 자신이 도둑임을 밝히면서 비단을 팔려고 돌아다녔지만 자꾸 이 집 대문 앞에 오게 되었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한다. 할머니는 그 청년을 용서하고 취직까지 시켜준다.

할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녀님은 가족이 없는 그분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할머니가 검사를 받으러 갈 때면 늘 자신의 보자기 주머니 하나를 맡긴다. 수녀님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며 물으니 할머니는 수녀만 특별히 보여준다며 펼친다. 집문서와 통장 2개 그리고 다이어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의 패물이 들어 있다. 수녀님은 누구 줄 사람이 없냐며 묻지만 할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평생을 모은 거라며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 수녀님은 자선은 축복이고 하느님 나라의 복을 입는 것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라고 권하지만 마이동풍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어떤 여인이 다가와 손을 잡고 놀러가자고 하면서 할머니가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았던 집들을 보여주는데, 그 집 마당에 알곡이 가득 차 있었고, 당신 집에 오니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고 짚단 하나만 딱 서 있었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어릴 때 송아지한테 짚단 하나 베풀며 산 게 다였다고, 지금껏 남한테 다 얻어먹고 살았지, 남들한테 베풀 것은 짚단 하나 밖에 없다는 그 여인의 꿈속 말을 생생히 전한다. 사실 할머니는 도둑질한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 8년 째 살아오면서 가게도 차려주었고, 결혼을 시켜주었기에 그 청년은 할머니 아들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할머니가 암에 걸리자 양아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아무 말 없이 병원에 들어와 버린 것이다. 수녀님은 양아들에게 즉각 연락하여 가족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할머니는 양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가족 품 안에서 편안히 선종하신다.

2. 성모성심의 바다

“할머니가 평안히 하느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은, 성모님이 늘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85쪽)한다. 평생 성모님께 의지하고 사셨던 할머니는 꿈에서 만난 성모님의 도움으로 완고했던 자신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양아들 가족은 할머니의 유연으로 모두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 성모 어머니의 도우심과 사랑을 통하여 풍부한 열매를 맺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봉헌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2020. 11. 15 청담동 성당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11월 04일 ~ 11월 10일)

봉헌 예물		감사 헌금	
연중 제 32주일	8,444,300원	정 돈보스코	100,000원
평신도주일 2차	4,019,590원	김 비오	100,000원
교무금	24,260,000원	조 안토니오	300,000원
성소후원금 ( 3건)	220,000원	김 베로니카	100,000원
<b>교무금 납부 현황</b>		항 로사	100,000원
총 세대수	2,545세대	윤 세실리아	50,000원
총 납부세대	1,241세대		
지난 주 납부세대	7세대	합계: 750,000원	
총 납부율 (%)	48.8%		